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1월 17일

CUOMO 주지사, LAGUARDIA 공항 홍수 피해에 대한 5개의 완화 및 복구 프로젝트 발표

3,750 만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인프라 보호 개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배수 능력을 강화하고, 홍수 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전원 유연성을 개선하여 향후 홍수가 발생해도 주요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LaGuardia 공항 홍수 피해에 대한 주요 완화 및 복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 비용은 약 3,750만 달러로 그 중 2,810만 달러는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 당국에 연방 기금으로 지급되는 재해 복구 및 완화 자금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태풍 Sandy는 뉴욕의 주요 자연 재해에 대해 준비 및 대처하는 방식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태풍이 닥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이며, 태풍이 와도 주정부가 뉴욕의 인프라가 강하고 내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크게 LaGuardia와 전국에 걸쳐 홍수 예방 및 전력 공급에 대한 탄력성을 개선합니다. 뉴욕주 정부는 전보다 더 낫게 재건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Pat Foye 공항 관리국 이사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공항 관리국은 홍수가 언제 재발하든 이 중요한 항공 노선이 가능한 한 열려 있고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LaGuardia 공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중요한 변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더 똑똑하고 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지사의 노력에 대한 또 다른 예시입니다."

Thomas Bosco 중간 항공 감독은 "어떤 비상 사태에서나 우리는 고객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고, 업무가 복구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항 운영에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어떤 홍수가 재발해도 뉴욕 공항이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사업은 Cuomo 주지사가 약속한 NYS 2100 Commission Report에서 강조한 권고 사항과 일치합니다. 이 2100년도 보고서는 특히 홍수 통제 및 전력 시스템 복구 조치를 통해 활주로 등 주요 공항 인프라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Korean

5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활주로 및 유도로 조명 시스템을 포함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서쪽 라이팅 볼트(West Field Lighting Vault) 주변의 방호벽 수로 설치.
2. 펌프장 등 비행장 시스템 강화에 중요한 웨스트 엔드(West End) 변전소 주변의 콘크리트 방호벽의 건설.
3. 비행장의 홍수를 최소화하고 공항의 기존 배수로를 보완하기 위한 중력식 배수로 건축. 이 사업은 기존 환경 변수에 따라 홍수로 유입된 물이 Flushing Bay로 배출될 수 있게 해주는 2개의 중력식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4. 공중 및 지상 작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더 크고 효율적인 비상용 백업 발전기로 기존 발전기를 대체합니다.
5. 공항이 전기 공급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발견 및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LGA 배전 그리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재건합니다. Sandy가 발생할 당시 상당한 양의 홍수로 인해 주요 전력 인프라가 물속으로 잠겨 인프라가 영구적으로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항 전력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차단되었습니다. 공항 전력 시스템의 요소는 홍수가 물러가면 다시 구동하고 수동으로 조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항이 자동화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통해 극한 기상 현상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심각한 상황에 따른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LaGuardia 공항은 10,000여 명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역 총 경제 활동에 13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는 뉴욕 지역의 주요 항공 시설입니다. 수퍼 태풍 Sandy가 LaGuardia 공항에 미친 영향은 Flushing Bay에서 1억 갤런 이상의 물이 비행장으로 유입됨으로써 공항 폐쇄로 인해 3일 동안 상업용 항공기가 운항되지 못했습니다. 25만여 명의 승객들은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은 물론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도 예약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LGA는 폭풍 해일 발생 시 Flushing 및 Bowery Bay의 물이 비행장에 유입되지 않게 고안된 수로 방호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수퍼 태풍 Sandy가 발생할 당시 거의 12피트에 달하는 전례없는 폭풍 해일로 인해 수로 방호 시스템이 범람하여 약 1억 갤런의 홍수물이 공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LGA는 5개의 대용량 펌프장과 연결된 확장된 기존 홍수물 수집로와 배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andy로 인한 홍수로 인해 약 몇 피트에 달하는 물이 펌프장과 발전소로 유입되어 한동안 작동이 중단되었습니다. FAA 및 기타 제한으로 인해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을 허용한다면 단순히 배수로 턱을 높이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